

웅산 “재즈는 늘 새로워…제게 무한한 도전과 자유를 줬죠”

30주년 기념앨범 내고 세종문화회관서 공연…“건강한 호기심으로 살아있는 예술 하겠다”

“재즈는 늘 새로워요. 제게 무한한 도전과 자유를 줬니다.”

한국 대표 재즈 디바 웅산이 올해 뜻깊은 데뷔 30주년을 맞았다.

1996년 1월 재즈 피아니스트 신관웅과 처음으로 무대에 선 이래 웅산은 30년간 재즈를 기반으로 블루스, 팝, 라틴, 펑크, 국악 등을 종횡무진 오가며 한국 재즈 음악계에 족적을 깊어 새겼다.

과거 출가해 비구니로 살던 때 ‘지친 새들도 쉬어갈 수 있는 큰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라’며 ‘웅산(雄山)’이라는 법명을 받은 그는 환속 후 록 음악을 하다가 재즈의 매력에 빠졌고, 이후 긴 세월 동안

안 재즈에 뿌리를 둔 음악 외길을 두번씩 걸어왔다.

웅산은 지난 2일 인터뷰에서 “저는 과거 록 음악을 했고, 10년 전부터는 국악 공부에도 매진해 이를 재즈에 녹여내고 있다”며 “이 같은 음악적 다양성은 저만의 무기가 됐고, 이를 통해 무한한 음악적 자유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기심이아발로 저를 계속 확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호기심으로 살아 있는 예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산이 세 번 바뀔 동안 저는 여전히 재즈를 하고 있고, 꾸준히 재즈에 감사

하고 있네요. 재즈가 그만큼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2003년 첫 정규앨범 이래 웅산이 지금까지 발표한 앨범은 정규앨범 11장, 한국의 명곡을 재즈로 재해석한 ‘사랑, 그 그리움’ 시리즈 앨범 4장, 스페셜 앨범 4장 등 총 19장에 이른다.

그는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니 힘들었지만, 이를 느끼지도 못할 만큼 바쁘게 달려왔다”며 “삶은 분명 고단했지만, 감동적이었다”고 소회를 드러냈다.

웅산은 30년 전 데뷔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지금은 사라진 흥대 인근 ‘서터’라는



재즈 디바 웅산 <제이피컴퍼니 제공>

클럽에서 ‘플라이 미 투 더 문’, ‘테이크 파이브’, ‘올 오브 미’ 같은 유명 재즈 스탠더드를 열창했다.

웅산의 음악 여정 가운데 2007년 발표한 ‘에스터데이’ (Yesterday)는 한국 재즈 음악으로는 드물게 20년 가까이 사

랑받으며 대표 히트곡으로 남았다.

그는 “제가 30년간 일귀 온 나만의 재즈를 새로운 실험적인 스타일로 펼쳐 재미있고 설다”며 “비디오 아트가 ‘변칙변칙’ 빛나는 가운데, 일렉트로닉 음악, 아쟁 연주, 국악을 섭렵한 보컬리스트의 재즈가 독특한 컬래버레이션(협업)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웅산은 6일 데뷔 30주년을 기념한 새 앨범 ‘히어스 투 라이프’ (Here’s To Life)도 발표했다. 그는 삶과 예술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과 흘러간 시간에 대한 감사와 성찰을 총 10곡에 녹여냈다.

앨범에는 웅산이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수장 생활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자작곡 ‘더 블루스 오브 리딩 가울’

(The Blues of Reading Gao)도 수록됐다. 그는 이 곡을 통해 인공지능(AI)의 파고를 맞닥뜨린 이 시대, 와일드의 삶을 통해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웅산은 “지금은 (오스카 와일드처럼) 성적 소수자라고 한 사람의 예술이 부당당하지는 않지만, AI의 시대 ‘나의 예술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세상이 급변할수록 인간의 살아 있는 음악과 예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이어 “저도 어느 노래가 너무 좋아서 며칠 듣다 보니, AI가 만든 곡이었던 경험이 있다”며 “그 노래가 멋있고 편했었지만 왜인지 가슴에 와닿지는 않더라. 뮤지션들이 AI를 이겨내려면 다정함과 사랑을 품고 더욱 인간적인 모습을 내보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연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 8월 27일
		천문역원 (062)673-2427
子	쥐띠 : 가까운 사이에서 불꽃이 튀기 쉬운 날이다. 화가 치밀수록 너그러운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 36년생 근거 없는 위세가 화를 준다. 목소리를 낮추는 순간 길이 열린다. 48년생 해법은 머릿속에 있어도 주변 여건이 받쳐 주지 않는다. 억지로 밀지 말고 틈을 기다려라. 60년생 일터나 모임에서 앞장서는 자리를 맡게 된다. 실력을 펼칠 무대가 깔린다. 72년생 기분이 출렁여 웃다가 울기 쉽다. 오늘은 잠시 멈춰 호흡을 골라라. 84년생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걸어 보라. 그 주문이 결과를 끌어당긴다. 96년생만 앞날을 그리기 전에 눈앞의 숙제부터 매듭지어라. 행운의 수 : 0.8 행운의 색 : 보라색	
丑	소띠 : 틀린 렌즈로 세상을 보면 길이 비틀린다. 왜곡을 견어내고 발걸음을 옮겨라. 37년생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조심하라. 말이나 기가 전에 숨을 한 번 골라라. 49년생 복잡하게 꼬지 말고 단순한 길로 풀려라. 단순함이 오늘 가장 빠른 수다. 61년생 혼자 궁리하기보다 여럿의 머리를 모아라. 손을 내미는 편이 낫다. 73년생 친구 사이에 남은 응어리가 있다면 이번에 풀어 보라. 사이가 한결 두터워진다. 85년생 무엇을 택할지 마음이 갈린다. 맨 처음 마음에 든 선택을 고수하라. 97년생 사소한 거슬림은 있어도 큰 문제는 아니다. 잔잔한 하루를 만끽하라. 행운의 수 : 2.3 행운의 색 : 연두색	
寅	호랑이띠 : 험잡고 다 판을 뒤집으면 후회만 남는다. 지금 자리를 지키는 편이 이긴다. 38년생 서둘러 결정하고 움직이면 큰 벽에 부딪힌다. 생각을 한 걸 더 쌓아라. 50년생 초기에 성과가 보여도 마음은 안절부절한다. 밝은 눈으로 판을 읽어라. 62년생 색안경을 벗는 순간 희망찬 장면이 열린다. 낯익은 틈을 깨 보라. 74년생 부지런한 손과 성실한 태도가 복과 기회를 부른다. 틈을 아끼지 마라. 86년생 나뭇가지에 꽃 피듯 새 출발의 기운이 웅돈다. 어깨를 펴 보라. 98년생 무리한 도전과 모험은 접어라. 오늘은 지치는 쪽이 승리다. 행운의 수 : 2.7 행운의 색 : 오렌지색	
卯	토끼띠 : 겉모습은 멀쩡해도 속이 답답하다. 자잘한 일부터 정돈하며 가슴을 열어라. 39년생 당장은 불편해도 편안한 편이 짜이니 보채지 마라. 51년생 애쓰 만큼 성과가 오니 그것으로 족하다 여겨라. 도와준 이들에게 친절을 남겨라. 63년생 아지랑이 피듯 마음이 열리고 관찰은 인연이 스칠 수 있다. 75년생 부부 사이에 곤란한 장면이 불쑥 끼어들 수 있다. 갈팡질팡하면 매듭이 더 꼬인다. 87년생 한 단계 도약할 기운이니 자신감을 내고 걸림돌을 치워라. 99년생 우가 기화로 바뀌는 흐름이다. 좋은 제안이 오면 붙잡아 보라. 행운의 수 : 7.8 행운의 색 : 흰색	
辰	용띠 : 재물 기운은 세나 꼬이고 묶여 있다. 욕심보다 소리를 따라 흘러가라. 40년생 자잘한 일에 예민하게 구는 태도를 접어라. 작은 일에 힘을 빼지 마라. 52년생 맘에 안 들어도 표정으로 드러내지 마라. 티를 내면 더 꼬인다. 64년생 함들어도 손을 거두지 마라. 풀림이 열린다. 76년생 그간 주축이 들었던 오늘은 어깨를 펴고 밀고 가라. 88년생 막힐수록 우회로와 경험자의 조언이 약이 된다. 00년생 다투기보다 한 발 낮추고 만남을 넓혀라. 새로운 만남 속에 복이 깃든다. 행운의 수 : 5.6 행운의 색 : 빨간색	
巳	뱀띠 : 진행 중인 일에 걸림돌이 있어 작업 장애는 있었지만 곧 반가운 일도 따른다. 41년생 소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흘러간다. 몸 상태도 함께 살려라. 53년생 중심을 굳히고 태연히 있으면 반가운 소식이 온다. 65년생 쌓아 둔 맘이 열매로 돌아온다. 동행한 이들과 기쁨을 나눠라. 77년생 거들어 주는 이가 많아 믿음의 오르고 흐름이 좋다. 89년생 막히던 일이 가슴에 울화록 가득 찬다. 말로 풀어 보라. 01년생 믿어 주는 손이 많아 용기가 나고 마음이 환하다. 행운의 수 : 0.5 행운의 색 : 주황색	
午	말띠 : 서로의 보는 눈이 다르다. 상대가 원하는 뜻과 상황을 먼저 읽어라. 42년생 감정의 리듬이 잘 맞는 하루다. 그 흐름을 일에 실어라. 54년생 남과 비교해 부족해 보여도 오늘은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66년생 송신기 일이 있다면 새어 나갈 위험이 있으니 입을 잠가라. 78년생 오늘 내뱉는 말의 무게가 남다르다. 굵고 바른 말을 골라라. 90년생 기세가 좋은 흐름이니 더 애쓰고 정진하면 큰 성과를 손에 넣는다. 02년생 작은 소원은 말을 수 있으니 간절히 움직이면 도움이 따른다. 행운의 수 : 3.9 행운의 색 : 보라색	
未	양띠 :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해법이 보이면서 미루지 말고 바로 손대라. 43년생 가슴을 열고 할 말을 꺼내 보라. 침묵보다 한마디가 낫다. 55년생 조금만 마음이 될 일까지 망친다. 서두르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라. 67년생 좋은 운이 다가오니 보채지 말고 때를 보며 눈앞 일에 몰입하라. 79년생 일이 마무리되고 장을 정리하는 시점이다. 결과에 감사하면 만족하다. 91년생 현명한 이의 한마디를 받아들여라. 고바가 기적처럼 풀릴 수 있다. 03년생 까다로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린다. 그걸수록 수년을 매겨 놓고 처리하라. 행운의 수 : 4.6 행운의 색 : 검은색	
申	원숭이띠 : 누구보다 앞서 움직여 일을 밀어붙여라. 빠른 발이 오늘의 무기다. 44년생 어느 길도 골라도 결말은 비슷하다. 망설이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라. 56년생 남에게 맡기지 말고 제 손으로 하라. 내 손이 가장 믿을 만하다. 68년생 탐욕을 절고 숨을 고르며 일을 밀라. 80년생 난관을 남을 힘과 지혜가 있으니 겸손한 행동은 상가라. 92년생 마음에 품은 이에게 밝고 단정한 모습으로 다가가라. 04년생 빛과 웃음이 넘치는 하루이니 공부에 깊이 들어가기 어렵다. 행운의 수 : 7.9 행운의 색 : 장미색	
酉	닭띠 : 처리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오늘 용기를 내어 정면으로 맞서라. 45년생 진심 어린 손길에 필요한 때다. 뜻밖의 이득을 바라지 말고 맑은 마음으로 서라. 57년생 예상 밖의 일이 불쑥 끼어들 수 있다. 당황하지 말고 호흡을 골라라. 69년생 찬바람이 불어도 서로 손을 잡으니 든든히 버틸 수 있다. 81년생 의심하면 괜히 의심만 부른다. 주변의 말을 애국 없이 받아들이라. 93년생 우연한 만남으로 빨리 가까워질 수 있으나 입방아가 생기니 조심하라. 05년생 나무에 열매가 달렸어도 채발로 따지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행운의 수 : 1.2 행운의 색 : 파란색	
戌	개띠 : 처음 품은 마음을 잃지 말고 중심축을 단단히 세워라. 흔들림이 곧 손실이다. 46년생 자잘한 일에 날카롭게 반응하지 마라. 조금 더 너그러워져라. 58년생 여럿과 함께하면 이롭고 내게 들어올 몫도 커지니 호흡을 맞춰라. 70년생 남에게 길을 양보하고 낯춰라. 두 배로 돌아와 안긴다. 82년생 먼저 울고 나중엔 웃는 흐름이다. 초반이 고돼도 기적처럼 풀린다. 94년생 책임감을 느끼고 말과 행동을 기다려라. 말은 바를 다하면 풍성한 수확이 따른다. 행운의 수 : 4.6 행운의 색 : 핑크색	
亥	돼지띠 : 주위의 도움으로 원하는 쪽으로 물줄기가 흐른다. 겸손한 태도로 어깨를 나란히 하라. 35년생 오늘은 내 뜻을 밝히고 도움이 필요하면 청하러 소통하라. 47년생 자잘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나 원만히 풀리니 차분히 맞서라. 59년생 혼자보다 사람들도 어울려라. 어울리는 자리에서 소식도 얻고 기쁨도 생긴다. 71년생 따지고 깨내려 들지 마라. 물결처럼 유연하게 움직여라. 83년생 남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뛰어들라. 95년생 따스한 햇살이 내려뚎과 마음이 풀린다. 상쾌하고 기쁜 하루가 된다. 행운의 수 : 3.5 행운의 색 : 자주색	



전국교통신망
광주교통방송
FM 97.3MHz

●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출발! 광주대행진 (07:00~08:52)

프로듀서: 정희준 | 진행자: 노희설 | 작가: 박지영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재난과 교통 위주의 정확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송으로
청취자들의 출근길을 안전하고 활기차게 책임집니다.

tbn 차차차 (14:05~15:53)

프로듀서: 이진아 | 진행자: 정인택, 박술기 | 작가: 한효정
나쁜 후오의 슬기로운 선택!! 박술기, 정인택과 함께
유쾌한 에너지를 가득 충전해보세요.
충겨운 트로트 가요와 신나는 코너로 스트레스를 해소드립니다.

광주 FM97.3MHz, 전남 동부권 FM103.5MHz
청취자 참여전화 080-9701-333
수신자부담 무료 교통재보전화 080-333-8000

tbn 남도매거진 (17:00~17:52)

프로듀서: 권유경, 박다운 | 진행자: 박유리 | 작가: 이항미
지역의 오늘을 읽고 내일을 바꿉니다.
남도매거진은 청취자와 지역을 잇는 가장 안전한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달리는 라디오 (18:05~19:55)

프로듀서: 나재구, 김지우 | 진행자: 최유경, 서예원 | 작가: 윤서희
복잡한 퇴근길, 달리는 라디오와 함께라면 마음만은 집으로 달려간다!
퇴근길 교통정보와 우리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유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달리는 라디오는 역시 달라!



광주방송

KCTV광주방송 채널 5번
뉴스제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프로그램 안내

KCTV뉴스 (19:00~19:20, 23:00~23:20)
지역에서 일어나 다양한 주요 소식을, 동배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일리 뉴스.

포토힐링타임
아름다운 자연과 인물을 담은 사진을 재구성한 영상앨범.
아마추어 사진작가, 전문 활동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발!V시대 (12:30~12:50, 20:30~20:50, 04:30~04:50)
시청자들이 직접 촬영하고 만든 아마추어 방송인들의
뜻뜻하고 생기 넘치는 영상제작물을 만나본다.

◆ 이번 주 주요프로그램 ◆

SO네트워크 < 지역이 묻고 국회가 답한다 >
전국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을 초대해 그들로부터 듣는 케이블TV 공동
연중기획 대담 프로그램.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전역의 현안과 현 국정에 대한
생각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계획을 들을 수 있다.
방송 : 10월 6일(수)~7일(금) 10:00~10:30

네트워크 전국발굴 < 군산 불항 주꾸미와 들깨 칼국수 맛집 >
케이블TV 방송국 5개사가 공동제작하는 각 지역의 맛과 멋을 담은 매거진TV.
금강방송에서는 골깃하고 불항 가득 주꾸미와 녹진한 들깨 국물이 매력인
칼국수까지 맛볼 수 있는 군산의 맛집을 소개한다.
방송 : 10월 5일(화)~10월 7일(금) 20:15~20:45

달려라KCTV < 동천동 골목형 상점가 편 >
전남광주 서구 동천동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을 만나는 시간. 주민들의 인기 맛집
등 동천동 상인들의 활기찬 현장을 찾아가 본다.
방송 : 10월 6일(수)~10월 9일(금) 12:00~12:30

CMYK